

제 6 장 죽음을 무너뜨리다 (왕하 4:8~37)

I.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주어짐 (4:8~17): ‘하루는’(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특별한 날)

1. 엘리사의 필요를 공급한 여인(8~10)

- 1) 여인의 간권(8): 한 번의 대접. 이후 엘리사가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제공
- 2) 남편과 의논(9):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
- 3) 엘리사를 위해 세심한 배려(10,13): 작은 방.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쪼대 준비.

2. 여인이 아들을 낳음(11~17)

- 1) 엘리사의 제안(11~14):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?
그의 사환 게하시의 답변. ‘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.’
- 2) 엘리사의 예언(15,16): 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.
 - a. “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”
 - b. 여인의 반응: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종을 속이지 마옵소서.
- 3)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음: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과 유사(창 18:10)

II. 수넴 여인의 아들이 생명을 회복함 (4:18~37): 왕상 17:17~24 비교

1. 여인의 아들이 죽음(18~25a)

- 1) 아들의 죽음(18~20): 고통 호소(‘내 머리야 내 머리야’).
반나절 만에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음
- 2) 여인의 반응(21~25a):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음
 - a.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둔
 - b. 나귀를 타고 자기 사환과 함께 갈멜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껏 달려감

2.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남(25b~37)

- 1)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안음(25b~27): 영혼의 고통과 간절한 마음 표현
- 2) 게하시에게 지시(29,31): ‘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.’ But 깨어나지 않음
- 3) 여인의 부탁(30): 여호와로 맹세.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(비교. 왕하 2:2,4,6)
엘리사가 여인을 따라감
- 4)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몸에 얹드림(32~37): 아이 살아남.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
☞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분의 권능을 분명히 드러내심